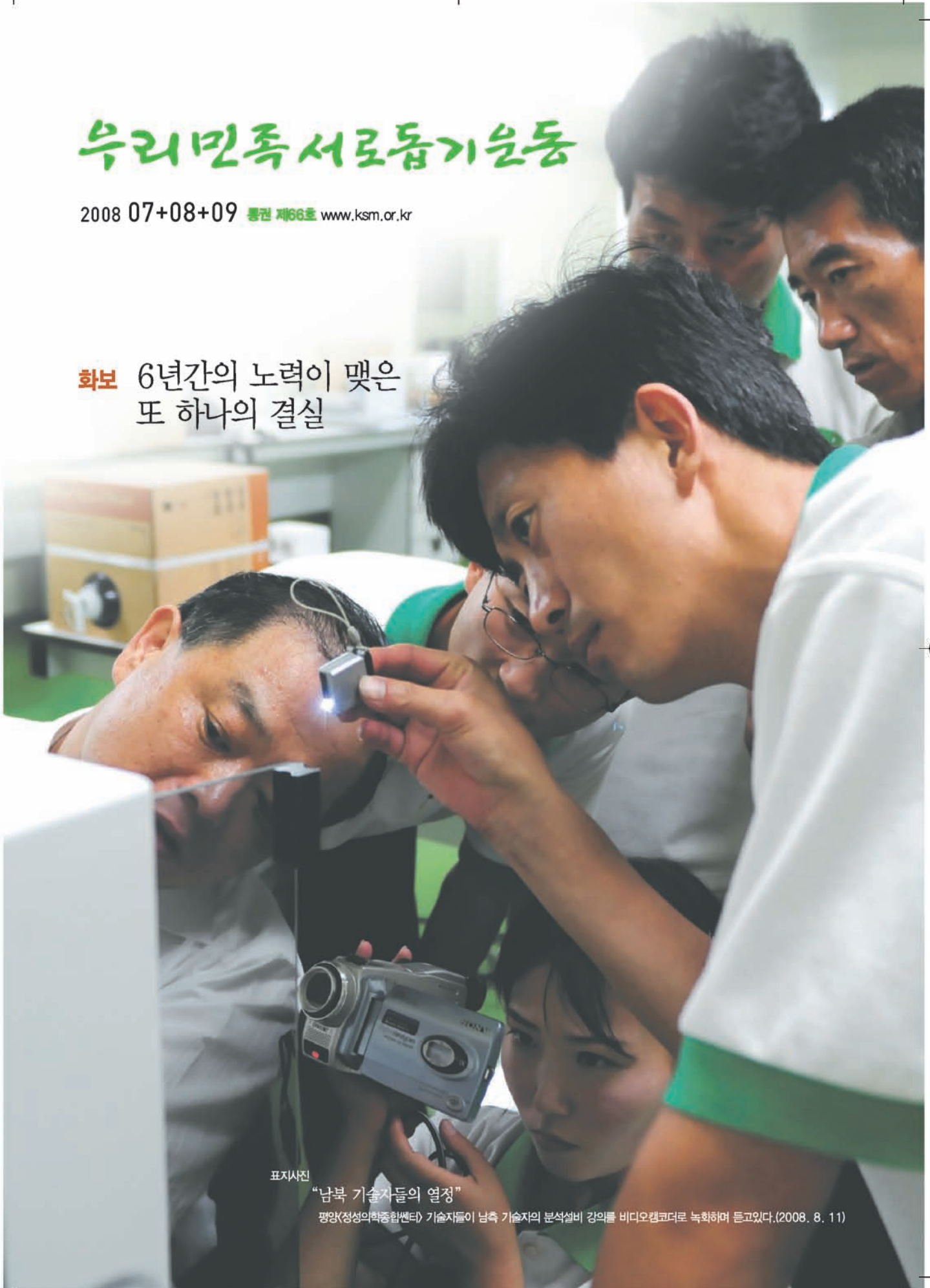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8 07+08+09 통권 제66호 www.ksm.or.kr

화보 6년간의 노력이 맺은
또 하나의 결실



표지사진

“남북 기술자들의 열정”

평양(정성의학종합센터) 기술자들이 남측 기술자의 분석설비 강의를 비디오캠코더로 녹화하며 듣고있다.(2008. 8. 11)

사진과 글로도
다 담지 못한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Korean Sharing Movement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06-1 덕성빌딩 8F
 TEL: (02) 734-7070 FAX: (02) 734-8770
1211-050

1월 15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www.ksm.or.kr
 2508 05+06



04



06



08



13



16



22

목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일(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04 **화보** 6년간의 노력이 맺은 또 하나의 결실

06 **인터뷰** 러시아 블고그라드의 한글선생님

08 **칼럼** 남북관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10 **기고** 북한 테러지원국 해지에 따른 한반도 변화전망

13 **나눔소식** 함께 나눠요

14 **연재** 다시 생각해보는 북한의 재난피해

16 **농업협력** 남북이 손잡고 말라리아모기 퇴치에 나서

18 **보건의료** 준공식 대표단 129명, 평양 다녀왔습니다

20 **고려인** "김치의 한류" 스텞까 라진의 고장 남부 러시아 볼가강에 흐르다

21 **인턴소개**

22 **사업일지**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4 **후원자명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8년 7+8+9월호 **통권 제66호** | 발행인 | 강문규 | 편집인 | 강영식 | 발행일 | 2008년 10월 10일

| 주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 전화 | (02)734-8770 | 팩스 |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 디자인 및 인쇄 | 인디디자인 (02-761-7939)

【고문】 김수환 추기경, 김준곤 목사, 백낙환 이사장, 서영훈 이사장 【상임대표】 강문규 【공동대표】 고희선, 김성훈, 김영수, 김홍국, 박경서, 박경조, 박남수, 박성민, 박원철, 박준영, 손충열, 안성모, 영 담, 유기덕, 윤덕홍, 윤여두, 윤장현, 이상준, 이영동, 이일영, 최대석, 최완규, 한지현

【감사】 박문식 【운영위원장】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 화보 |



6년간의 노력이 맺은 또 하나의 결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129명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 9월 20일 직항방북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을 둘러보는 남북대표단



① 환영만찬 중 환담을 나누는 영담 공동대표와 이충득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② 옥류관에서 점심식사 ③ 평양순안공항에 도착한 대표단의 기념촬영 ④ 백두산 정상 사적비 앞에서 설명중인 북측 안내원 ⑤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준공 현판식(좌부터 LG디스플레이 최선화 대리, 정성의학종합센터 정태경 부지배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영담 공동대표, LG디스플레이 김갑수 노조사무국장) ⑥ 인민대학습당에서 컴퓨터 실습 중인 북측 대학생 보고 있는 대표단 ⑦ 인민대학습당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⑧ 개선문에서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대표단 ⑨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준공 티오프 커팅식 ⑩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선전판을 보고있는 대표단

| 인터뷰 |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한글선생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한글학교 교사로 류정숙님이 두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 러시아로 향했던 때는 2007년 9월이다. 혹독한 겨울의 시작인 러시아의 땅, 볼고그라드 고려인 한글학교 교사로 가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난 2008년 8월, 러시아 체류 비자문제로 류정숙님이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돌아왔다. 작년 겨울, 볼고그라드 시장에서 산 상추가 얼어붙어 상추잎을 꺾어 먹었다는 애기와 함께 열린 미소를 보이는 류정숙님을 만났다.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학교 사업보고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찾은 것이다.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과 인연맺기

사실 류정숙님은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과의 인연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의 인연이 먼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고려인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사업팀장인 이봄철 부장의 아내다.

“남편이 집에 오면 쉬지 않고 러시아 볼고그라드 얘기를 해요. 특히 친구들을 함께 만날 때는 더 심하죠. 그래서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과의 만남이 더 수월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볼고그라드행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권유와 역할이 가장 컸고요.”

11살, 6살이 된 두 아이와 함께 멀리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교사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볼고그라드 생활에서 묻어나는 그의 표정과 말에서 익숙함이 느껴졌다. 볼고그라드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이젠 볼고그라드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한국에서의 생활이 낯설게 느껴지는 듯도 했다.

러시아에서 시작한 한글선생님의 꿈

류정숙님은 꿈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국문학을 전공하고 국어선생님이 꿈이었던 그가 볼고그라드에서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선생님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주변 선배들의 조언도 크게 작용 했고요.”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에는 현지 고려인 2명과 류정숙님을 포함하여 3명의 실무자가 근무하며 한글을 가르치는 일 뿐 아니라 고려인축제에서부터 고려인 생활지원, 농업지원 사업까지 하는 일은 다양하다.

고려인에게 꼭 필요한 한글교사가 되는 것

러시아 볼고그라드에는 8곳에 한글학교가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운영하는 2곳, 교회운영 4곳, 볼고그라드 사범대학교 1곳과 국립대학교에 1곳이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한글학교는 5곳이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글학교는 볼고그라드시(4명)와 볼스키시(12명) 2곳에서 운영 중이다. 처음보다 침체에 있다고 한다. 한글의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젊은 고려인 세대는 러시아에서 한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러시아인이기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학교 학생들과 류정숙님(왼쪽에서 세번째)

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젊은 고려인에게 한국과 한글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말과 나라로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겨울에 한글학교 문이 열기도 전에 저보다도 먼 곳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한글을 배우겠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고려인들에게 한글교육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많지 않은 고려인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류정숙님에게 한글교육과 목표는 뚜렷했다. 올해 초에 한글학교 아이들이 만든 ‘볼고그라드 고려인’이라는 홈페이지 운영과 한글 영상교육을 위한 한국영화 상영, 고려인들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제작 등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한다.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고려인들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 일을 끝냈을 때, 지금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9월초 류정숙님은 다시 러시아 볼고그라드로 떠났다. 그리고 어김없이 혹독한 추위의 겨울은 찾아올 것이다. 류정숙님이나 고려인에게 겨울은 즐겁지 않은 계절이다. 그러나 올 겨울 볼고그라드 한글학교는 분명 겨울날 고려인들의 마음을 녹이는 사랑과 희망의 학교가 될 것임을 믿는다. 류정숙님에게 아직 고려인은 ‘참 좋은 학생’이고, 고려인에게 류정숙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오형운 자원개발팀 간사

남북관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최원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반갑지 않은 두 가지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 있다. 정권교체가 때마다 발표되고 있는 남한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남한 새 정부 '떠보기 내지 길들이기 식' 대응 태도가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그 동안 남북한관계는 남한의 단절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과도한 대응 때문에 진전과 퇴행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인 공존공영의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전임정부와의 차별성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양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보수 세력이 10년 만에 되찾은 정권이니 만큼 버리고 바꾸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대북 햇볕정책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정책이 상정하고 있는 몇 가지 가정과 추진방식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족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경도된 대북인식과 지나 친 대북 저자세, 단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내려는 조급한 업적주의 등은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온건한 중도노선을 견지해 온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법이 꼭 전임정부의 정책을 폄하하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단절을 강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점을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별다른 묘책이 있을 수 없는 대북정책까지 전임정부의 정책과 단절할 필요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비핵개방 3000' 정책(북한의 비핵화, 개방 및 근대화, 3,000달러 수준의 경제발전)내용도 조건과 수단은 다르지만 전임정부의 정책목표와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실로 북한과 상생과 공영을 도모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대북정책에 관한 한 지금이라도 전임정부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인정하는 선례를 세워야 할 것이다. 만약 새 정부가 보수 세력의 시선을 의식해서 과거 정부의 정책을 본질보다는 정략적 차원에서 과도하게 비판하면서 또 다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집권 5년 내내 지난 10년 간 두 정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한반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북한의 선택과 변화이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점점 더 추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하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다.


그리고 5년 뒤에는 후임정부에 의해 또 다시 자신의 정책이 부정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5년 마다 달라지는 남한정부와 남북관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것이다.

연속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두 가지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1970년대 후반 이래 한국정부가 구상하고 추진해 온 대북화해협력의 틀을 계승하고 그 바탕위에서 대내외적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을 형성한 이론적 바탕은 점진적 교류협력을 통한 기능통합망의 확장을 중시하는 기능주의통합론이고 햇볕정책이나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반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큰 열개 속에서 햇볕정책과 평화변영정책의 성과도 담아낼 수 있다.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설정과 수단방법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정세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추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그 동안 남북한문제를 규정해 온 냉전에 기초한 1953년 휴전체제는 탈냉전예의 조류가 반영된 1991년의 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냉전과 휴전체제에 기반 한 전통적인 동맹체제(한미동맹)를 고집하거나 거기에 안주하는 대북정책은 현실적합성이 없다. 그것은 아직도 민족모순의 해소를 통한 통일에 매달리는 것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남북한은 냉전시대처럼 어느 일방만의 발전과 번영이 미덕일 수 없는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을 방치하면서 남한만 번영하면 한반도의 미래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중심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 북한은 여전히 갈등과 극복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외면하면서 우리만 잘 하면 된다는 냉전시대의 논리는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향후 한반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북한의 선택과 변화이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점점 더 추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하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다.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한반도 변화전망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최철영 교수의 글을 통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경제제재 근거법령과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위한 다양한 근거법령들

북핵 6자회담의 2.13합의가 지난 6월 말 북한의 핵 신고와 영변 핵원자로 냉각탑 폭파라는 정치이벤트를 통해 순조로운 이행과정을 보임에 따라 미국은 8월 11일까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적대국가, 테러지원국가, 인권위반국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개발 국가라는 근거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해 왔다. 특히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을 반복적으로 국제테러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수출관리규정(EAR)의 반 테러(AT) 규정의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져 왔던 만큼 그 근거법도 여러 법령에 나누어져 있다. 예컨대 적성국교역법(TWEA)에 의한 대북제재는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시행하고 있는 경제제재로서 북한은 동법 상 미국과 교전 중에 있는 적국(enemy)이며 북한의 적국지위변경은 북미간의 교전상태종료를 국제법적으로 확인하는 종전, 종전선언, 종전협정, 불가침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을 포함하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법적 합의문서가 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성국교역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제재의 수위를 낮출 수는 있을 것이지만 적성국교역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1988년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부여된 테러지원국 지위의 지정해제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수출관리규정(EAR)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남북경협관련 대북물자 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AR의 E:1그룹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북한에게는 외국산 물품이더라도 미국산 부품이 10-25%이상 사용된 상품에 대하여는 허가에 근거하여 수출을 허용하는 최소기준원칙(deminimis)이 적용되지 않아 미국이 아닌 국가가 미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goods)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제의 대상이 되므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남북교역 및 북한의 경제회복에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하는 것은 EAR에 의한 경제제재는 국가안보, 외교정책 수행,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테러지원국의 지정해제가 바로 EAR의 적용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EAR에 의한 경제제재 중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이루어지는 제재만을 해제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EAR)이다. EAR의 수출통제규정들은 국가안보, 대외정책, 핵확산금지, 그리고 미국의 희소자원 공급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행을 위하여 특정한 수출, 재수출 및 특정 행위를 통제하

기 위하여 제정된다. 일부 통제는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국가나 개인이 이중용도물품(dual use items)¹⁾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들 규정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포함하거나 특정한 국가의 테러지원가능성과 군사력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를 포함하였다.

EAR은 특정한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미국산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하여 수출관리국의 허가(license)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허가요건은 당해 물품의 교역통제물품목록(CCL)상²⁾ 물품분류, 목적지, 최종소비자(end user), 최종용도(end use), 그리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2.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테러지원국가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수출규제의 해제 경우 미국대통령은 첫째, 당해 국가정부의 지도자의 기본정신과 대외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당해 정부가 국제적인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당해 국가가 향후 국제적인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가를 고려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배제되는 경우 테러지원국으로서 부과되었던 경제제재는 관련 부처의 합동회의를 통해 검토되어 결정된 결과에 따라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테러지원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국 군수물자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과 기술의 수출, 미 상무성 CCL에 포함된 이중용도사용 품목 및 기술의 허가받지 않은 수출, 대외원조법·농산물무역개발법·평화봉사단원법·수출입은행법 등에 의한 지원,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면세, 미 재무성 관련 규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미국 국민의 제재대상국 정부와의 금융거래, 제재대상국에서 획득한 법인 및 개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포함한다.



2008년 9월 평양 시내 모습

그러나 북한이 국가그룹 테러지원국(E:1)이 아닌 다른 국가그룹 국가안보(D:1), 핵(D:2), 생화학무기(D:3), 미사일기술(D:4)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제제재의 경우 그대로 유지된다.

특기할 것은 EAR이 북한과 관련하여 두 개의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반 테러(Anti-terrorism)규정으로서 북한을 비롯하여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를 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두고 있다. 이 조문으로 인해 북한은 EAR의 모든 규정에 따른 제재를 포괄적으로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규정(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ulation)으로³⁾ 북한의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치품 등에 대한 북한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리비아의 사례를 보면 BIS는 EAR의 개정을 통하여 리비아를 테러지원국가를 표시하는 국가그룹 E:1에서 삭제하고 국가그룹 D:1에 추가하였다. 다른 한편 리비아는 국가그룹 D:2, D:3 그리고 D:4에 그대로 남아있다.⁴⁾ 북한의 경우에도 리비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1) 종종 군사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 모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이중용도라는 용어는 EAR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물품과 다른 정부기관에 의하여 수출통제를 받는 물품간의 구분을 위하여 사용된다.

2) CCL은 10개의 범주로 나누어졌으며 각 범주는 다시 A(장비, 부품 등), B(실험, 조사, 생산장비), C(물자), D(소프트웨어), E(기술)의 다섯 그룹으로 분류되고 각 그룹의 품목은 5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 교역통제분류번호(ECCN)가 부여된다.

3) 2006. 10. 9 북한의 핵실험 이후 UN의 대북제재 결의(Resolution 1718)에 따라 기존의 CCL에 포함된 핵 및 미사일관련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통제에 추가하여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및 재수출에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된 Final Rule. 이 규정은 또한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제102(b)조에 규정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2006년 12월 7일의 대통령 지침(directive)FR 1899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4) 국가그룹 E:1은 테러지원국가들로서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의 5개국만 분류되어 있으며 쿠바의 경우에는 일방적 수출금지대상인 E:2에도 해당된다. 국가그룹 D는 국가안보(D:1), 핵(D:2), 화학 및 생화학무기(D:3), 미사일기술(D:4) 등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는 국가들의 그룹이다. 이외에도 국가그룹 A와 B가 있다.

| 기고 |

은 국가그룹 D:2분류와 별개로 핵실험으로 인하여 EAR 내에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리비아보다 제재해제의 폭이 좁을 것이다.

3. 테러지원국 해제로 대북 물자반출의 폭은 확대된다.

반테러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교역통제목록(CCL)의 모든 품목은 북한에 대한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분류표(Country Chart)의 반 테러 분류(AT column) 1 또는 2에 있는 수출통제분류번호(ECCN)의 허가요구 항목을 포함하는 CCL의 모든 품목이 포함된다.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BIS는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하여 두 가지 유형의 반 테러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EAR §742 추록 2의 (c)(1) 내지 (c)(5)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모든 최종수요자에게 수출 및 재수출이 예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금지를 통한 통제

두 번째 유형은 EAR §742 추록 2의 (c)(6) 내지 (c)(45)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군사, 치안, 정보 또는 다른 민감한 최종수요자에게 수출 및 재수출이 예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금지를 통한 통제

따라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면 이들 품목 중 비 민감 최종수요자에게는 수출이 허용되는 품목에 대한 통제가 해제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품목에 대한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 테러지원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다른 이유로도 EAR에 의한 수출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수출통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강력 트랙터, 9톤 이상의 운반능력을 갖춘 트랙터, 400마력 이상의 디젤엔진, 내비게이션, 방향탐지, 레이더 장비, 전력테스트 장비, 무선통신장비, 음향수중탐색장치, 이동식 전비발전기, 선박 및 보트, 해양 및 잠수엔진, 진동테스트장치, 0.0004 WT 이하의 APP를 탑재한 컴퓨터, 통신장비, CAD를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XCCN 5A991.c.에 서술된 장비로서 패킷스위치, 항공운항통제를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100 microgal

이하의 정확도를 갖는 중력미터, 평방근 Hertz 당 1.0 nt rms 이하의 민감도를 갖는 자기미터, ECCN 1C006.d에 서술된 레이더 용액의 냉각을 위한 불화탄소 콤파운드, ECCN 1C210에 서술된 고강도 유기 및 무기 섬유, 직경 1.25 미터까지의 장비를 절삭하기 위한 ECCN 2B002 및 2B993에 서술된 기계, ECCN 2B996에 서술된 수동 차원 검사기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수정하기 위한 실시간 처리에 있어 정보환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 ECCN 1C355에 의한 통제되는 생산기술, ECCN 0A999, 0B999, 0D999, 1A999, 1C999, 1D999, 2A999, 2B999, 3A999, 6A999에 의해 통제되는 특정 처리장비, 재료 및 소프트웨어 등 비 민감 목적이나 최종수요자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수출이 허용되던 품목들이다.

그러나 반테러 규정 중 반출금지 예상품목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금지되던 품목, 생화학무기확산통제를 목적으로 금지되던 품목, 미사일기술확산 통제를 목적으로 금지되던 품목, 핵무기확산통제를 목적으로 금지되던 품목, 군사관련 품목, 항공기와 헬리콥터 그리고 부속품, 암호관련 장비, 수중사진촬영 장치, 잠수함관련 시스템, 스쿠버 장비 및 부품, 고농축항공산소호흡관련 장비, 컴퓨터로 수치가 통제되는 공작기계, 0.004WT를 초과하는 APP를 탑재한 컴퓨터, 처리속도가 0.5 GFLOPS 또는 그 이상인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제조장비, 항공기 표면체 및 항공기 날개 밀링기계, ECCN 2A983에 서술된 폭파탐지장비, ECCN 2E983에 서술된 기술, ECCN 1C992에 따라 통제되는 상업적 도구, ECCN 1C997에 포함된 암모니아 질산염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비 군사적 최종소비자에 대한 수출도 허가되지 않는 품목들이다.

또한 UN 안보리의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한 대북 제재결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북한규정에 따라 BIS는 EAR99로⁵⁾ 분류되어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포함하여 EAR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품목의 북한에 대한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하여 허가(license)획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BIS는 EAR99로 분류되어 있는 식량 및 의약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⁶⁾

5) EAR99는 넓은 의미에서 EAR에 의하여 규율되는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CCL에 올라 있지도 않고 ECCN에 의한 번호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지칭한다. EAR99에 해당되는 품목은 통상적으로(usually)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EAR의 통제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핵확산 활동을 위한 사용에 공여되어서는 안되며 수출금지국가에 이전되어서도 안된다.

6) 통상규제품목리스트(CCL)에 의해 통제되는 의약품은 수출과 재수출을 위하여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함께 나눠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업은행과 북한 보건의료 현대화사업을 위한 1억7천만원 지원 협약체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행이 '조선적심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을 위해 1억7천만원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박경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와 정재환 홍보대사, 이준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정충현 기업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조선적심자종합병원 지원사업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종합병원인 조선적심자병원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지역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준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의 인사말에 박경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관이 힘을 합쳐 북한 돕기에 함께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누군가는 꼭 해야하는 일, 그 일에 계속 함께하자.”며 지원협약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북녘동포들을 위한 나눔에 함께 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행에 감사드립니다.



코오롱네트 백두산 문화탐방단, 북한 어린이 위해 성금 기부

IT서비스 전문기업인 코오롱네트(대표 : 변보경, 조영천의 임직원들이 지난 9월 26일 북한어린이를 위한 성금 47만원을 모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보내왔습니다.

이번 기부에 참여한 12명의 직원은 사내에서 개최한 우수사원 선발행사의 수상자들입니다. 부상으로 받은 4박 5일간의 백두산 문화탐방을 통해 북한 어린이의 어려운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오롱네트의 이번 문화탐방단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된 중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비췌던 북한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다고 전합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화탐방단은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방법을 논의, 먹을 것이 부족한 북한의 실상을 감안해 북한 어린이들의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모금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코오롱네트 조영천 대표이사 역시 이 같은 문화탐방단의 뜻에 함께 해 성금모금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성금모금에 참여해주신 코오롱네트 조영천 대표이사 및 문화탐방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은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등의 북한 어린이 급식에 쓰일 예정입니다.

연재



다시 생각해보는 북한의 재난피해

정민숙 새터민, 가명

재난 중에 제일 무서운 재난이 물과 불이며 인간의 힘으로도 감당 못한다는 북한말처럼 어깨너머로 차오르는 물 위로 바다가의 거친 파도마냥 남정네 허리만큼이나 굵은 통나무들이 둥둥 떠내려 오는가하면 어느 집 돼지 인치 짹짹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기며 악을 쓴다.

얼마 전 연합뉴스에 실린 개성시의 침수피해 기사를 읽고 가슴이 철렁거리 한동안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먹을 거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그 어느 해 한번 소리 없이 지나간 적 없는 큰물피해는 올해에도 거침없이 들이닥치리란 예감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북방의 대도시 청진은 해양성기후의 커다란 영향으로 겨울에는 내륙지대인 평양에 비해 비교적 따뜻한 편이지만 여름에는 오뉴월이 되어도 좀처럼 숨옷 벗기가 어려운 정도의 차가운 날씨가 계속된다. 그래도 봄은 찾아오고 밭을 갈아 씨도 뿌리고 모내기를 한다. 워낙 쌀 구경 하긴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강냉이를 많이 심어 80만 온 시민이 먹고 살아간다.

모살이를 끝낸 벼 모가 한창 자라기 시작해 제법 진녹색의 푸른빛을 띠면서 무릎까지 넘실거리도록 클 때가 되면 올해에는 이밥을 먹어볼 수 있을런지 걱정 반 기대 반에 푸르러가는 논밭을 제집 텃밭처럼 애정가지고 흐뭇하게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모자란 곡물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 북한 땅에서 한 번의 비 피해는 보통 엄청난 수재민을 낳고 양식을 손실당하고 있는데 허물며 몇 해째 계속되는 가뭄과 갑작스런 홍수는 가뭄이나 힘들고 어려운 북한경제 상황에 헤어날 길 없는 죽음을 더해준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① 2007년 홍수로 물에 잠긴 북한의 가옥
② 2007년 국제적십자의 구호품을 나르는 북한주민

정민숙님은 2004년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 64호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들어다보며 시름을 더는 것이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다. 타도에 비해 경지면적이 훨씬 작고 거의 다 산으로 둘러싸인 함경도는 주 농사가 강냉이 재배다. 눈요기나 할 정도의 작은 논밭에 없는 지대적인 특성으로 대부분 채소재배와 강냉이 농사를 위주로 하는 청진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시민이 모두 떨쳐나 두 손으로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초봄부터 영양단지를 옮기고 비료를 뿌리주면서 등 지게로 물을 날라 가뭄을 극복한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병충해를 막아내면서 봄내 여름내 가꿔놓은 강냉이는 장마가 시작되면서부터 허사일이 되고 마는 해가 종종 있다.

어느 해인가 초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한밤중이 되자 비 줄기가 점차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구멍이 뚫린 듯 역수로 쏟아 불기 시작하였다. 온 세상을 집어 삼킬듯한 요란한 우뢰소리와 번쩍이는 번개는 잠밤 간담을 서늘게 하였다. 밤새 내린 엄청난 장마 비는 이산 저산 골짜기 물을 다 건어안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만들면서 도시 한 복판으로 보란 듯이 유유히 흘러들기 시작하였다. 소밭구가 여기저기 통통 걸리면서 떠밀어 내린 그 위에 온갖 물건들을 다 담아 실은 듯 가관이 아니다. 봄내 여름내 땀 흘리며 정성들여 가꾼, 갓 수염이 나오기 시작한 강냉이는 뿌리 채 뽑혀 양배추와 같이 흔들거리며 춤을 추듯 쓸려간다. 집집마다 신주 모시듯 기르던 가축들이 다 떠내려가 한숨짓는 아낙네들의 시름어린 얼굴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가 하면 부엌에 찬 물들을 연신 퍼내느라 정신없는 온 동네 아이들의 난리법석에 며칠사이 세상이 바뀐 것처럼 무서웠다. 대가정인 우리집안도 물이 차 어디라 없이 변변한 곳이 없었다. 이불과 농작의 옷가지들이 다 젖어 엉망진창이 되고 제일 걱정인 것은 당장 밥을 끓여먹을 수가 없었다. 앞마당에는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졌고 학교로 가는 길에 다니는 다 떠내려가 애들이 등교를 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들에서는 특별히 지대가 낮아 비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동원사업에 전 종업원이 공장 문을 닫고 출근하였다. 그래도 가정이 나 도로 건물피해는 시간이 걸리긴 해도 복구가 가능하지만 심각한 것은 도시민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농작물피해였다. 논밭의 벼가 다 누워서 일어 설 염두조차 못하고 수십만 넘는 시민이 총동원되어 온 여름 땀 흘리며 정성들여 키워놓은 강냉이가 이삭이 피기도 전에 넘어지고 꺾어져 제 구실도 못하고 한해농사를 다 망쳐버렸다.

올해에 들어 아직까지 남한에는 심각한 비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북한지역에는 언제 또 큰물이 닥칠지 모른다. 때늦은 여름이나 초가을에도 장마가 시작되는 오늘날의 지구온난화로 이미 한반도에는 아열대성 기후가 자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 땅에서는 약간의 수재민이 발생해도 여기저기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북한 땅에 수재민이 발생하면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그나마도 늦게 약간의 지원이 가능하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수해 피해는 이젠 더 북한 땅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며 남북한 모두가 자연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갈, 대홍수와 수재민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빨리 오기를 장마철만 되면 늘 기원할 뿐이다. 🌧️

| 농업협력 |

남북이 손잡고 말라리아모기 퇴치에 나서

여름철 중국 일류날개 암컷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는 고열로 인한 일시적 노동력 상실 등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 함은 남쪽에서는 대부분 휴전선과 가깝게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시 강화, 옹진,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일산, 고양, 동두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 고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홍상영 사업국장

경기도 일산에 사는 건강한 젊은이가 모처럼 현혈을 하러 현혈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현혈은 하지 못하고 되돌아 와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름 아닌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 함은 연간 환자수가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인 곳으로 남쪽에서는 대부분 휴전선과 가깝게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시 강화, 옹진,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일산, 고양, 동두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 고성도 여기에 속합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현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2년간은 현혈이 금지됩니다. 개성을

비롯한 북한지역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속합니다. 만약 위험지역에 여러분이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성관광을 다녀왔거나 일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온 경우 1년간 현혈이 금지 됩니다. 잠복기가 긴 말라리아가 수혈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휴전선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말라리아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남측에서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북측에서 날아오는 모기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방역 효과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을 오가는 말라리아 전염 모기를



농업협력동

북측이 혈액검사기를 설명중인 남북 기술자

원천적으로 감소시켜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상호 방역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에 말라리아 방제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약품, 살충제, 모기장 등입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남북한 모두 말라리아 환자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남과 북이 협력과 교류를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국제기구인 WHO를 통해서 방역물자를 지원하는 간접 협력 방식입니다.

남·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자료:질병관리본부,WHO)

(단위 : 명, 군인제외)

| 구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남한 | 1,357 | 834 | 668 | 1,091 | 1,662 | 1,771 |
| 북한 | 241,190 | 60,559 | 33,803 | 11,507 | 9,353 | 7,436 |

말라리아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2007년 한해 남한에서 1,77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85%인 1,515명이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기타 지역의 환자도 휴전선 인근 군북부나 여행 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북측도 7,436명의 90%인 6,713명이 개성지역이 포함된 황해남북도, 강원도, 평안남·북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지역의 환자 발생현황('07.12월말)

(단위 : 명, 군인제외)

| 구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2004년 | 2003년 |
|------|-------|-------|-------|-------|-------|
| 전국 | 1,771 | 1,660 | 1,091 | 668 | 834 |
| 경기도 | 677 | 620 | 467 | 285 | 332 |
| 북부지역 | 474 | 517 | 361 | 215 | 267 |

경기도는 몇 년전부터 말라리아 공동방역의 필요성을 북측에 제기해왔습니다. 금년들어 남쪽의 경기도와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쪽의 민화협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해보기로 하고 지난 3월 개성에서 협력에 대한 합의를 교환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방역 전문가들과 북측의 방역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말라리아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역방식을 찾아보고 또 북측이 그에 필요한 방역물자가 있다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말라리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9월사이 공동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남측에서 5월부터 방역



2008년 7월 지원한 말라리아 방역 약품 및 장비

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로 하였고 한달에 한번 개성에서 남북의 전문가들이 만나 방역결과를 교환하고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지역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과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밀도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방제관련 기술과 인력도 교류하기로 했다. 1차로 지난 5월 말 방역기계와 차량 그리고 수동식 분무기와 방역약품을 전달하였고 물품과 함께 방역기술자들을 파견해 장비 사용법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1차 지원을 포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지난 7월초까지 방역기계와 차량 7대, 수동식 분무기 100대, 살충제 5톤, 모기유충구제약 1톤, 실내용 살충제(95000개), 조기진단키트 5000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300세대분의 방충망과 모기향을 지원하여 향후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협의는 남측에서 경기도청 보건분야 분야의 실무자들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북측은 의과학원 기생충연구소 말라리아 담당책임자와 개성시 방역담당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북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남북공동 말라리아방제 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협력사업입니다. 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말라리아 환자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라리아로 인한 헌혈 제한으로 생긴 국내 혈액감소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동방역사업은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과 북 해결방식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제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및 <적십자종합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129명, 평양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및 적십자종합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을 위해 129명의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북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예정 남북협력사업2팀 부장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129명의 대표단을 실은 전세기가 인천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7월 금강산 사건 이후 첫 직항 방북이라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고 또 출발 직전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 '아, 이제 끝났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우리민족 대표단은 영담 스님

을 단장으로 이일영 교수님, 윤여두 대표님, 최완규 교수님 등 네 분의 공동대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LG디스플레이, 불교방송 관계자 등 많은 단체/개인 후원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방북은 준비 과정도 그렇지만 두 건의 준공식을 진행하고 백두산 지구까지 방문하게 되면서 현지에서의 일정도 참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방북 둘째 날 진행된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

리실)과 <적십자종합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은 정성의학종합센터에서 합동으로 거행됐습니다. 우리 민족 대표단 129명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성원들, 정성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준공식은 정성의 리광수 과학과장의 사회로 준공 경과 보고, 남북 양측의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둘러 본 종합품질관리실은 2년 전까지 각종 잡자재가 쌓여있던 공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게 멋지게 단장돼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수액약품공장, 2006년 2월 알약약품장이 준공된 이후 이번에 종합품질관리실이 설치되면서 정성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의약품과 생산되는 완제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사가 가능케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교 방송, LG디스플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많은 후원자 분들의 정성으로 준공된 품질관리실은 864㎡ 면적에 계기분석실, 미생물시험실, 물리화학시험실 등 13개 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적외선분광광도계, 아미노산분석기 등 26종의 분석기기, 초차류, 비품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에서의 행사를 마친 후 대표단은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현판식을 위해 조선적십자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병동 8층에 위치한 수술장은 총 4개의 수술실과 소독실, 환자대기실, 집중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개보수 자재 일체와 150여 가지의 크고 작은 수술기기, 수술도구 등이 지원됐습니다. 직접 내부 공사를 진행하시느라 늘 작업복 차림이셨던 적십자 의사선생님들도 이날만큼은 멋진 의사다운 차림으로 우리를 맞으셨습니다.

그분들의 맘이 뻗 수술장에서 그 분들의 손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까지 전해져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분주했던 둘째 날이 지나고 사흘째, 대표단은 백두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역시 백두산은 웅장했고, 아름다웠고... 또 추웠습니다. 이미 단풍이 짙게 물든 고원 지대를 지나 백두산 정상에 오르자 살을 에는 바람이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던 순간, 모두의 마음은 하나였을 겁니다. 비록, 백두산은 우리에게 '천지'를 열어주지 않았지만 한 후원자분의 말씀처럼 다시 백두를 찾아오라는 뜻 일 거라 믿으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 방북은 남북 당국 간 관계가 공공 얼어붙은 시기에 추진되어 준비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정과 행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늘 함께 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따뜻한 마음, 온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 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주요 지원 목록 적외선분광광도계, 아미노산분석기, 불용성미립자시험기, 디지털경도계, 전자식 수분측정장치, 응점측정장치, 응고점측정장치, 굽는점측정장치, 질소정량장치, 디지털수질분석기, 발열성시험표면온도계, 분석천평(1/10만), 초순수제조장치,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COD 측정기, BOD 측정기, 진공데시케터,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기, 폐하미터, 조제전자천평, 온습도계, 무균시험장치, 전위차측정장치, 정유측정장치, 알콜수측정장치, 각종 초차류 및 비품 등

적십자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주요 지원 목록 무명등, 미취기, 흡입기, 환자감시장치, 수술침대, 탄산가스레이저치료기, 심전도, 기계장, 수술용회전외자, E.N.T Total Treatment Unit, 수술현미경, 후두 및 경부수술세트, Septum set(코수술), ESS set(코수술기구), Ear set(귀수술기구), 두경부 수술 세트, 레이저수술장치, T&A set(편두수술), 수술용 ENT 의자, 개구기/기타 Dressing 기구 SET, 귀 / 코 내시경, O2 TANK(40L)(중고), N2O 탱크(40L), 필름독영등(MEW BOX), 전기소작기, 이동용측등, 미량주입기, 수동혈압계, Dressing Car, Scrup Station, 고압멸균기, 자물소독기, 자외선소독기, 환자 운반침대, 수술대, 내시경장비, 순음청력검사기 및 임피던스장비 및 전기선치료기 등 외래장비, 각종 의료소모품 등

제7회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김치의 한류” 스텐까 라진의 고장 남부 러시아 볼가강에 흐르다

정유정 해외사업팀 간사



한국 방문단 주요일정 (7박 8일)

10월 10일(금)

인천공항 출국→모스크바 도착→볼고그라드 도착

10월 11일(토)

‘제7회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참가

10월 12일(일)

시설영농단지, 고려인 농사현장 탐방

10월 13일(월)

주정부 간담회, 볼고그라드 사무실 방문, 모스크바 이동

10월 14일(화)

빠페르 부르크 도착, 탐방

10월 15일(수)

모스크바 도착, 일정

10월 16일(목)

모스크바 일정, 모스크바→인천 출발

10월 17일(금)

서울 도착, 귀가

2001년부터 시작된 볼고그라드고려인축제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합니다. 6번을 개최하면서 고려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여러 민족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다민족 다문화 축제의 장으로 지역의 중요한 지역문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토), 센트랄리 콘제르리 잘(중앙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제7회 고려인 축제는 고려인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들을 가지고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하는 ‘김치축제’를 합니다. 볼고그라드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HKA),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UBK),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볼고그라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김치축제이며, ‘김치의 한류, 스텐까 라진의 고장 남부 러시아 볼가강에 흐르다’라는 타이틀 아래 한국음식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고려인 음식문화의 재발견 및 확대를 통해 고려인 음식을 알리고, 나아가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음식문화축제입니다.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개최한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는 고려인의 영역을 넘어 모든 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다민족 다문화의 축제로, 고려인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알리고 러시아 현지의 문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문화 행사로서 볼고그라드 유일의 소수민족 축제입니다.

고려인들에게 희망과 화합의 장이자 다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제7회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에 고려인들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고, ‘고요한 동강’의 무대인 볼고그라드와 유럽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룬 대표적인 두 도시 모스크바와 북쪽의 베네치아라는 예명을 가진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체험할 수 있는 고려인 축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려인 축제 주요일정(10월 11일)

| 구분 | 내용 |
|--------|---|
| 개회식 | 볼고그라드 주·시정부, 주 국회의원, 대사관, 우리민족 대표단, 각 민족 대표단 인사 등 |
| 문화공연 | 각 민족 전통문화공연, 고려인 참여의 노래 및 징기 공연 마을별 경연대회, 시물놀이 |
| 체육활동 | 제기차기, 윷놀이, 나르딕, 줄다리기 등 각종 민속놀이 |
| 김치 박람회 | 김치소개 영상물 상영, 김치 담그기 김치 시식회, 김치 전시회 |
| 기타행사 | 오찬/만찬, 경품추첨 |
| 폐회식 | 합창 ‘우리는 다 같은 동포’ ‘아리랑’ |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마음으로

이화연 조지워싱턴대학교 2년



안녕하세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턴 이화연입니다. 동아시아국제관계 수업을 듣고 북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막연히 북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인턴 지원을 했던 것이 7월 초인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여러 크고 작은 일을 해온 지금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실감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많은 시간 땀 흘려 완성한 일은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2007년도 사업보고서입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2007년도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한 문장 한 문장 영역하며, 대북지원 사업의 다양성을 배우고 보다 폭 넓은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 시간에 제가 영역하는 사업 내용을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더 큰 수확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무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최선의 영역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 및 홍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영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모여 큰 획을 이루는 대북지원 사업을 몸으로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유학 생활로 인턴십에 힘든 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식구들께 감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지원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2008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턴십을 통해 비로소 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마음으로 가까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경험과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시간 같은 점심시간

임성훈 경희대학교 1년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교의 첫 여름방학을 맞은 1학년 임성훈이라고 합니다. 새내기 첫 여름 방학을 무엇을 하며 보낼까 이것저것 고민해 보았습니다. 국토대장정, 자전거일주, 배낭여행, 아르바이트, 자격증공부 등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외국 유명대학의 교수님께서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는 "Global Collaborative"라는 학교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수업을 끝마친 후에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NGO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이름을 본 것은 학교가 제공해준 NGO 목록에서였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저에게 남북교류, 대북지원, 동포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고기를 잡아주는 물자지원이 아닌 북에 직접 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개발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인턴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던 시간은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밥을 먹으면서 가지게 되는 토론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일과 관련된 입장을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마치 학회 동아리 세미나에 참석한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고 충고도 들을 수 있었고 제 입장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동안 철부지 1학년을 무한한 배려로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인턴활동 한 달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일 뿐만 아니라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민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무한한 발전과 활약 부탁드립니다.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7月



8月

- 1일**
 - 제2차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약품 지원 및 대표단 개성 방북 (15명)
 - 정성의학종합센터 초자류 선정을 위한 개성 방북 (5명)
- 2일** 2차 평화나눔센터 Reliefweb보고 (개풍 양묘장 지원사업)
- 4일** 평양시 금성 제1중학교 지원 협의를 위한 대표단 개성 방북 (8명)
- 7일** 3차 평화나눔센터 Reliefweb보고 (아동급식 지원사업)
- 9일**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한 2차 북한동포돕기 긴급식량지원 (금강산, 대한성공회 기탁 쌀 25톤)
 - 평화나눔센터 2차 북한이슈와 정책포럼 모임
- 16일** 적십자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추가 개보수 자재 지원
- 21일** 4차 평화나눔센터 Reliefweb보고 (남북 공동말라리아 방역사업)
- 23일**
 - 개성시 개풍양묘장 육묘 관리 및 양묘기술 이전을 위한 실무단 개성 방북 (7명)
 -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사료 40톤, 온실용 비닐박막 등 지원
 - 적십자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수술설비 및 비품 119종 지원
 -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 1차 분석기기 및 초자류, 비품 지원
- 24일** 개성시 소재 신규 농업사업협의를 위한 대표단 개성 방문 (6명)
- 25일** 제3차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약품 지원 및 대표단 개성 방문 (9명)
- 29일**
 - 3차 북한동포돕기 긴급식량지원 (옥수수 85톤, 중국단동 → 신의주)
 - 제 5회 재외동포 NGO대회 참가 (사할린)
 -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구유치원에 국수, 우유, 빵, 담요 등 급식자재와 생필품 지원
- 30일**
 -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생육 점검 및 양돈 기술 이전과 신규 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평양 방문 (8명)
 -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 2차 분석기기 지원
- 5일** 5차 평화나눔센터 Reliefweb보고 (아동급식 지원사업)
- 6일** 평양시 금성 제1중학교의 개보수에 사용할 지붕재 지원 (인천-남포)
- 7일**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 3차 분석기기 지원
- 9일** 정성의학종합센터 분석기기 설치 기술진 방북 (7명)



9月

- 13일** 개성시 소재 신규 농업사업협의를 위한 대표단 개성 방문 (8명)
- 14일** 6차 평화나눔센터 Reliefweb보고 (정성종합의학센터 지원사업)
- 16일** 적십자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설비 설치 기술진 방북 (10명)
- 20일** 적십자병원 의약품 5억원 상당 지원 (대한적십자사 위탁)
- 21일** 평화나눔센터 3차 북한이슈와 정책포럼 모임
- 22일**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구유치원에 국수, 우유, 빵, 공책 등 급식자재와 학용품 지원
- 27일**
 - 평양 순안종합장 돼지사료 30톤 지원
 - 적십자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추가 개보수 자재 및 정성의학종합센터 추가설비 지원
 - 평안북도 신의주육아원, 신의주애육원, 동림중등학교, 삭주군이부모학원에 설탕, 콩기름, 분유 등 급식 지원
-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협약식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 기금 1억7천만원 후원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
- 1일** 인재양성센터 2차 네트워크 전문가과정 개강식 (중국단동 교육센터)
- 4일** 평화나눔센터 학술토론회
〈남북관계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진로모색〉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8일**
 - 개풍양묘장 치량 수리부품 5톤지원
 - 평안북도 신의주육아원, 신의주애육원에 국수, 콩기름, 설탕, 점적주사기 등 급식자재와 의료용품 지원
- 12일**
 - 정성 및 적십자병원 준공식 협의를 위한 개성 방북 (4명)
 - 개성시 양돈장 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개성 방북 (10명)
- 20일**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및 〈적십자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 참석을 위한 대표단 직항방북 (129명)
- 22일** 평양채소온실 물자 1차 지원 (연동 및 단동 각1동)
- 26일**
 - 북한 영유아사업 협의를 위한 심양방문 (1명)
 - 연해주 고려인 문화축제 참관
- 30일** 남부러시아 볼고그라드 농업사업 세미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

회비납부명단

| | | | | | | | | | | | | | |
|-----|---------|------|---------|-----|---------|-----|--------|-----|---------|-----|---------|-----------|---------|
| 김상길 | 10,000 | 김희중 | 10,000 | 방양수 | 10,000 | 오수형 | 30,000 | 이승영 | 20,000 | 장영달 | 30,000 | 전상호 | 10,000 |
| 김상범 | 30,000 | 니병만 | 10,000 | 방준일 | 10,000 | 오유자 | 5,000 | 이승우 | 10,000 | 장영준 | 10,000 | 전희광 | 10,000 |
| 김상식 | 10,000 | 나선길 | 10,000 | 배대환 | 10,000 | 오용희 | 10,000 | 이승호 | 10,000 | 장영훈 | 10,000 | 차민수 | 10,000 |
| 김상운 | 5,000 | 나원연 | 20,000 | 배동용 | 10,000 | 오형근 | 20,000 | 이승현 | 20,000 | 장원식 | 10,000 | 차민애 | 10,000 |
| 김석진 | 10,000 | 나은우 | 10,000 | 배명용 | 10,000 | 왕정환 | 5,000 | 이유미 | 10,000 | 장영경 | 10,000 | 창제환의원 | 100,000 |
| 김성영 | 50,000 | 남성돈 | 10,000 | 배상수 | 5,000 | 왕정환 | 5,000 | 이애희 | 20,000 | 장영진 | 5,000 | 채병철 | 10,000 |
| 김성영 | 5,000 | 남세현 | 5,000 | 배정안 | 20,000 | 왕정환 | 10,000 | 이안하 | 5,000 | 장영재 | 10,000 | 채민숙 | 5,000 |
| 김성희 | 10,000 | 남정현 | 10,000 | 백낙서 | 10,000 | 우성호 | 10,000 | 이영보 | 10,000 | 전달수 | 10,000 | 채병철 | 10,000 |
| 김철자 | 10,000 | 노관숙 | 5,000 | 백재구 | 20,000 | 우정호 | 10,000 | 이영주 | 10,000 | 전달관 | 5,000 | 채병배 | 15,000 |
| 김성봉 | 40,000 | 노금호 | 10,000 | 백학순 | 5,000 | 우혜진 | 5,000 | 이운순 | 10,000 | 전병태 | 10,000 | 최경인 | 10,000 |
| 김성민 | 10,000 | 노인선 | 20,000 | 변진옥 | 5,000 | 원동오 | 10,000 | 이상규 | 10,000 | 전성관 | 10,000 | 최동식 | 50,000 |
| 김성재 | 20,000 | 노정환 | 20,000 | 봉미란 | 10,000 | 원종남 | 10,000 | 이윤경 | 10,000 | 전성희 | 10,000 | 최민지 | 10,000 |
| 김성철 | 10,000 | 노재순 | 10,000 | 서영미 | 10,000 | 원종남 | 10,000 | 이영석 | 10,000 | 전영미 | 10,000 | 최병훈 | 10,000 |
| 김성혜 | 20,000 | 노춘봉 | 5,000 | 서기영 | 30,000 | 유근호 | 30,000 | 이윤갑 | 5,000 | 전영일 | 10,000 | 최병희 | 20,000 |
| 김성희 | 5,000 | 노형래 | 10,000 | 서남주 | 10,000 | 유근호 | 20,000 | 이원보 | 10,000 | 전영운 | 10,000 | 최삼구 | 10,000 |
| 김소희 | 10,000 | 도재영 | 10,000 | 서동근 | 5,000 | 유영희 | 5,000 | 이원옥 | 5,000 | 전일수 | 10,000 | 최성민 | 50,000 |
| 김수경 | 10,000 | 류병욱 | 10,000 | 서동화 | 20,000 | 유재현 | 30,000 | 이문상 | 5,000 | 전영수 | 10,000 | 최신홍 | 10,000 |
| 김소옥 | 10,000 | 류용성 | 5,000 | 서병호 | 10,000 | 유성식 | 10,000 | 이윤환 | 10,000 | 전영희 | 5,000 | 최성민 | 20,000 |
| 김순이 | 10,000 | 류이근 | 10,000 | 서정숙 | 10,000 | 유순주 | 50,000 | 이윤정 | 10,000 | 전영남 | 10,000 | 최수진 | 5,000 |
| 김순희 | 10,000 | 류재훈 | 10,000 | 서정희 | 10,000 | 유성환 | 10,000 | 이문세 | 10,000 | 전혜민 | 5,000 | 최소옥 | 10,000 |
| 김신희 | 10,000 | 류주현 | 5,000 | 성신준 | 5,000 | 유민진 | 10,000 | 이민덕 | 10,000 | 전희진 | 5,000 | 최소호 | 10,000 |
| 김광수 | 30,000 | 류현식 | 10,000 | 송경일 | 10,000 | 유윤숙 | 5,000 | 이민배 | 20,000 | 정경남 | 10,000 | 최소호 | 10,000 |
| 김영모 | 20,000 | 류희자 | 10,000 | 송경환 | 10,000 | 유인숙 | 10,000 | 이민수 | 10,000 | 정영학 | 3,000 | 최영순 | 5,000 |
| 김영미 | 10,000 | 무주승 | 5,000 | 송광우 | 20,000 | 유인숙 | 10,000 | 이달식 | 5,000 | 정영학 | 5,000 | 최우정 | 10,000 |
| 김영수 | 10,000 | 무기병 | 10,000 | 손덕현 | 20,000 | 유정국 | 10,000 | 이달영 | 5,000 | 정영훈 | 10,000 | 최우식 | 5,000 |
| 김영순 | 10,000 | 문경순 | 5,000 | 손영주 | 10,000 | 유중식 | 10,000 | 이장백 | 20,000 | 정근영 | 10,000 | 최정규 | 30,000 |
| 김영숙 | 20,000 | 문근영 | 5,000 | 손진혜 | 10,000 | 유자수 | 8,500 | 이장욱 | 5,000 | 정기석 | 5,000 | 최정환 | 10,000 |
| 김영주 | 10,000 | 문근재 | 5,000 | 송경민 | 20,000 | 유진숙 | 10,000 | 이장현 | 5,000 | 정기현 | 20,000 | 최정영 | 10,000 |
| 김영표 | 10,000 | 문미영 | 5,000 | 송길홍 | 10,000 | 유정중 | 10,000 | 이재홍 | 30,000 | 정대민 | 30,000 | 최정영 | 10,000 |
| 김영호 | 5,000 | 문병혁 | 5,000 | 송두린 | 30,000 | 유재홍 | 20,000 | 정도민 | 10,000 | 정영민 | 10,000 | 최지수 | 5,000 |
| 김옥영 | 10,000 | 문성경 | 10,000 | 송병석 | 10,000 | 윤근영 | 5,000 | 이재희 | 10,000 | 정영준 | 20,000 | 포장수신(재)홍대 | 20,000 |
| 김연배 | 20,000 | 문영식 | 5,000 | 송상광 | 10,000 | 윤광순 | 5,000 | 이재희 | 5,000 | 정미란 | 10,000 | 물두학교 | 200,200 |
| 김영덕 | 30,000 | 문은철 | 10,000 | 송상진 | 10,000 | 윤남희 | 10,000 | 이영민 | 10,000 | 정미영 | 10,000 | 하미정 | 10,000 |
| 김영희 | 5,000 | 문재식 | 20,000 | 송신주 | 10,000 | 윤도희 | 5,000 | 이영환 | 100,000 | 정민 | 5,000 | 하수정 | 20,000 |
| 김우영 | 20,000 | 문정호 | 10,000 | 송영란 | 10,000 | 윤우영 | 10,000 | 이정환 | 10,000 | 정성모 | 10,000 | 한성영 | 20,000 |
| 김우진 | 20,000 | 문정호 | 10,000 | 송운라 | 20,000 | 윤미희 | 10,000 | 이정환 | 10,000 | 정성민 | 10,000 | 한양아 | 3,000 |
| 김원근 | 10,000 | 문종용 | 10,000 | 송재식 | 10,000 | 윤영범 | 30,000 | 이정수 | 10,000 | 정성훈 | 10,000 | 한태식 | 20,000 |
| 김원국 | 10,000 | 문홍주 | 10,000 | 송재은 | 10,000 | 윤병현 | 10,000 | 이정숙 | 10,000 | 정수근 | 10,000 | 한태희 | 15,000 |
| 김우경 | 5,000 | 민여경 | 10,000 | 송재현 | 20,000 | 윤서영 | 5,000 | 이정식 | 50,000 | 정수현 | 5,000 | 한태희 | 30,000 |
| 김윤기 | 10,000 | 민현주 | 10,000 | 송창태 | 10,000 | 윤수영 | 50,000 | 이영주 | 10,000 | 정영민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윤진 | 10,000 | 박건식 | 10,000 | 송창태 | 10,000 | 윤수진 | 20,000 | 이영현 | 10,000 | 정영민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윤경 | 10,000 | 박경관 | 10,000 | 송자심 | 10,000 | 윤은복 | 5,000 | 이정희 | 5,000 | 정연준 | 10,000 | 한태희 | 5,000 |
| 김은경 | 3,000 | 박공우 | 100,000 | 송현태 | 30,000 | 윤재희 | 10,000 | 이종경 | 20,000 | 정연준 | 20,000 | 한태희 | 5,000 |
| 김은숙 | 5,000 | 박기호 | 20,000 | 신기호 | 10,000 | 윤정식 | 10,000 | 이종영 | 10,000 | 정영기 | 10,000 | 한태희 | 5,000 |
| 김은희 | 5,000 | 박남용 | 50,000 | 신기훈 | 10,000 | 윤종원 | 10,000 | 이종우 | 10,000 | 정영철 | 10,000 | 한태희 | 5,000 |
| 김은혜 | 10,000 | 박덕선 | 10,000 | 신대현 | 10,000 | 윤정식 | 10,000 | 이종석 | 30,000 | 정영희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은희 | 10,000 | 박덕환 | 10,000 | 신동식 | 10,000 | 윤정환 | 10,000 | 이종안 | 20,000 | 정영인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응삼 | 10,000 | 박동우 | 5,000 | 신동태 | 5,000 | 윤정하 | 10,000 | 이종열 | 20,000 | 정영진 | 10,000 | 한태희 | 5,000 |
| 김익선 | 10,000 | 박동호 | 50,000 | 신수익 | 10,000 | 윤정호 | 20,000 | 이종주 | 5,000 | 정영희 | 20,000 | 한태희 | 10,000 |
| 김익선 | 10,000 | 박두영 | 10,000 | 신수익 | 10,000 | 이정기 | 50,000 | 이종호 | 5,000 | 정영희 | 10,000 | 한태희 | 5,000 |
| 김일성 | 100,000 | 박문식 | 30,000 | 신순일 | 5,000 | 이정희 | 5,000 | 이종호 | 10,000 | 정영민 | 10,000 | 한태희 | 5,000 |
| 김정연 | 5,000 | 박미란 | 10,000 | 신순철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종희 | 10,000 | 정영민 | 10,000 | 한태희 | 20,000 |
| 김정환 | 10,000 | 박미희 | 10,000 | 신은경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종희 | 10,000 | 정영태 | 100,000 | 한태희 | 5,000 |
| 김재광 | 5,000 | 박민선 | 50,000 | 신준식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종희 | 2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재옥 | 5,000 | 박병무 | 10,000 | 신진현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종희 | 10,000 | 정영태 | 5,000 | 한태희 | 10,000 |
| 김재철 | 10,000 | 박병식 | 30,000 | 신진호 | 20,000 | 이정희 | 5,000 | 이진현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재호 | 10,000 | 박병우 | 10,000 | 신현호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진현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재호 | 10,000 | 박복영 | 10,000 | 신현창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진현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정 | 10,000 | 박삼옥 | 50,000 | 신홍수 | 20,000 | 이정희 | 30,000 | 이진현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정미 | 10,000 | 박상일 | 20,000 | 심광진 | 2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정수 | 5,000 | 박상현 | 10,000 | 심달선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정수 | 10,000 | 박선숙 | 5,000 | 심중식 | 10,000 | 이정희 | 2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정환 | 30,000 | 박선숙 | 20,000 | 심원주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정환 | 10,000 | 박선준 | 10,000 | 안영일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종구 | 5,000 | 박선찬 | 10,000 | 안영화 | 2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종구 | 10,000 | 박사회 | 10,000 | 안상희 | 5,000 | 이정희 | 5,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종순 | 10,000 | 박순 | 10,000 | 안재홍 | 20,000 | 이정희 | 5,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종식 | 30,000 | 박순식 | 10,000 | 안재수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종혁 | 10,000 | 박애스더 | 50,000 | 안정숙 | 5,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종훈 | 10,000 | 박영근 | 10,000 | 안정덕 | 5,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주영 | 50,000 | 박영근 | 10,000 | 안정숙 | 5,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주태 | 5,000 | 박영근 | 20,000 | 안정숙 | 5,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주희 | 10,000 | 박영철 | 10,000 | 안정숙 | 4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주호 | 30,000 | 박요순 | 10,000 | 안정숙 | 100,000 | 이정희 | 5,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준모 | 10,000 | 박용권 | 20,000 | 안정숙 | 26,3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준서 | 20,000 | 박우경 | 10,000 | 안근성 | 10,000 | 이정희 | 2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준현 | 100,000 | 박원규 | 10,000 | 안문수 | 10,000 | 이정희 | 5,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중수 | 10,000 | 박은하 | 5,000 | 안미화 | 2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중호 | 30,000 | 박익용 | 10,000 | 안미화 | 5,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지현 | 10,000 | 박이현 | 20,000 | 안순환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진현 | 10,000 | 박인숙 | 10,000 | 안우성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진현 | 9,000 | 박일수 | 5,000 | 안윤주 | 2,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창근 | 10,000 | 박재욱 | 10,000 | 안윤보 | 2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창연 | 10,000 | 박재현 | 10,000 | 안주은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태식 | 10,000 | 박정근 | 50,000 | 안진선 | 5,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태수 | 20,000 | 박정숙 | 10,000 | 안정숙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태우 | 10,000 | 박정자 | 10,000 | 안정숙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학경 | 10,000 | 박종길 | 10,000 | 안정숙 | 5,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희선 | 10,000 | 박종복 | 10,000 | 안정숙 | 10,000 | 이정희 | 10,000 | 이창재 | 10,000 | 정영태 | 10,000 | 한태희 | 10,000 |
| 김희준 | 10,000 | 박종미 | 5,000 | 안정숙 | | | | | | | | | |

회비납부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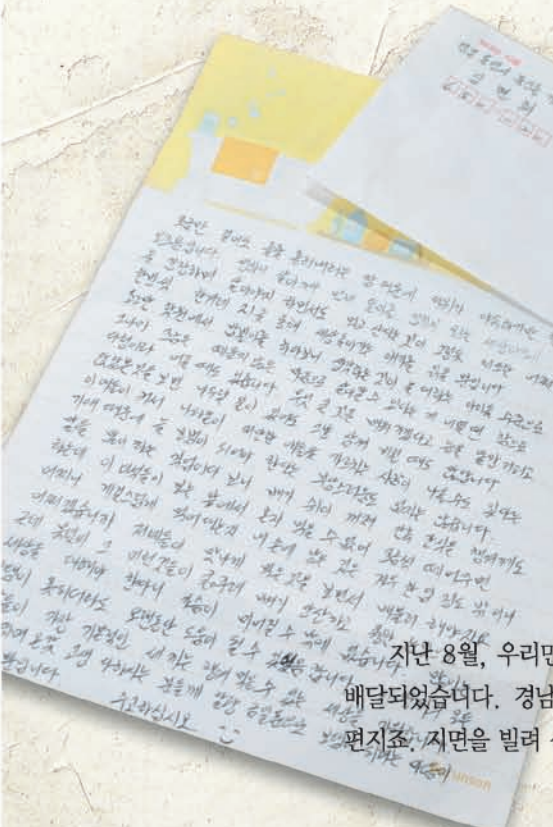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신진호 | 20,000 | 이경미 | 5,000 | 이준희 | 10,000 | 정외화 | 20,000 | 한순호 | 5,000 | 장동혁 | 10,000 | 박종열 | 10,000 |
| 신철호 | 10,000 | 이경재 | 10,000 | 이지영 | 5,000 | 정외성 | 10,000 | 한승엽 | 10,000 | 장성희 | 5,000 | 박동원 | 10,000 |
| 신현호 | 10,000 | 이경희 | 10,000 | 이지현 | 20,000 | 정외민 | 10,000 | 한운주 | 10,000 | 장수준 | 5,000 | 배선규 | 10,000 |
| 신홍수 | 20,000 | 이명재 | 10,000 | 이지하 | 5,000 | 정외환 | 10,000 | 한정화 | 10,000 | 조은상 | 30,000 | 박성희 | 20,000 |
| 심경란 | 50,000 | 이국림 | 5,000 | 이찬원 | 10,000 | 정외현 | 100,000 | 한진옥 | 5,000 | 조은희 | 20,000 | 방인식 | 5,000 |
| 심말선 | 10,000 | 이규봉 | 10,000 | 이찬우 | 10,000 | 정외태 | 10,000 | 한정현 | 5,000 | 조영미 | 20,000 | 박성근 | 10,000 |
| 심중식 | 10,000 | 이규호 | 10,000 | 이찬우 | 10,000 | 정외원 | 50,000 | 한혜순 | 5,000 | 조영미 | 10,000 | 심도경 | 5,000 |
| 심정주 | 10,000 | 이근덕 | 30,000 | 이찬용 | 10,000 | 정외현 | 10,000 | 함영운 | 5,000 | 조영준 | 10,000 | 심원호 | 5,000 |
| 심현주 | 10,000 | 이근태 | 10,000 | 이찬영 | 10,000 | 정외정 | 10,000 | 허남순 | 5,000 | 진만순 | 5,000 | 스병재 | 5,000 |
| 안명일 | 10,000 | 이근행 | 10,000 | 이중욱 | 5,000 | 정외옥 | 10,000 | 허원중 | 10,000 | 최승기 | 10,000 | 손삼국 | 10,000 |
| 안명희 | 20,000 | 이금수 | 20,000 | 이필원 | 10,000 | 정외우 | 10,000 | 허은이 | 10,000 | 한국화학연구원 | | 송범식 | 5,000 |
| 안상화 | 5,000 | 이기원 | 10,000 | 이한솔 | 5,000 | 정외우 | 10,000 | 허 일 | 10,000 | | 80,000 | 송영식 | 5,000 |
| 안재봉 | 20,000 | 이기호 | 10,000 | 이해동 | 10,000 | 정외성 | 5,000 | 홍효일 | 10,000 | 한준남 | 10,000 | 송인규 | 10,000 |
| 안승자 | 10,000 | 이기희 | 10,000 | 이현경 | 20,000 | 정외환 | 10,000 | 현은숙 | 10,000 | 한성남 | 50,000 | 신민수 | 5,000 |
| 안영숙 | 5,000 | 이길호 | 5,000 | 이현식 | 10,000 | 정외환 | 10,000 | 현은실 | 10,000 | | | 신병선 | 10,000 |
| 안영희 | 5,000 | 이남재 | 5,000 | 이현숙 | 5,000 | 정외환 | 10,000 | 현은실 | 10,000 | 홍원옥아임 | | 안현식 | 5,000 |
| 안종금 | 5,000 | 이남철 | 5,000 | 이현숙 | 5,000 | 정외환 | 10,000 | 현은애 | 10,000 | (유명건설) | 10,000 | 안갑식 | 10,000 |
| 안종철 | 5,000 | 이대식 | 10,000 | 이현우 | 20,000 | 정외경 | 5,000 | 현종운 | 40,000 | (유세화관광여행사) | 20,000 | 안갑진 | 5,000 |
| 안준식 | 40,000 | 이대호 | 10,000 | 이혜란 | 5,000 | 정외재 | 10,000 | 조영진 | 15,000 | (유스미일기회건설) | | 안갑옥 | 10,000 |
| 안원주 | 20,000 | 이동식 | 10,000 | 이혜원 | 10,000 | 정외성 | 10,000 | 홍구표 | 30,000 | | | 오영섭 | 5,000 |
| 안형재 | 100,000 | 이동영 | 10,000 | 이혜원 | 10,000 | 정외성 | 10,000 | 홍기호 | 10,000 | | 20,000 | 오주성 | 10,000 |
| 안근식 | 10,000 | 이동원 | 10,000 | 이혜원 | 10,000 | 정외성 | 10,000 | 홍관희 | 5,000 | 강동혁 | 5,000 | 오진민 | 5,000 |
| 안문수 | 10,000 | 이동우 | 10,000 | 이혜정 | 5,000 | 정외성 | 10,000 | 홍민기 | 10,000 | 강병수 | 10,000 | 우광택 | 50,000 |
| 안미아 | 20,000 | 이동우 | 5,000 | 이효성 | 50,000 | 정외성 | 10,000 | 홍명서 | 5,000 | 강신우 | 5,000 | 원병복 | 10,000 |
| 안미화 | 5,000 | 이득희 | 10,000 | 이홍준 | 10,000 | 정외성 | 10,000 | 홍미옥 | 30,000 | 강철희 | 10,000 | 유병철 | 5,000 |
| 안우성 | 10,000 | 이두철 | 20,000 | 이희숙 | 50,000 | 정외성 | 10,000 | 홍상준 | 5,000 | 강태성 | 20,000 | 유병준 | 5,000 |
| 안윤경 | 2,000 | 이미라 | 5,000 | 이효숙 | 50,000 | 정외성 | 10,000 | 홍상건 | 10,000 | 강해경 | 5,000 | 유재욱 | 5,000 |
| 안진성 | 20,000 | 이민성 | 10,000 | 이효선 | 5,000 | 정외성 | 10,000 | 홍성복 | 10,000 | 고영성 | 5,000 | 유종덕 | 5,000 |
| 안주용 | 10,000 | 이민영 | 10,000 | 이화원 | 5,000 | 정외성 | 10,000 | 홍승희 | 20,000 | 고신규 | 10,000 | 유희권 | 5,000 |
| 안진석 | 5,000 | 이민영 | 10,000 | 이희중 | 5,000 | 정외성 | 10,000 | 홍원수 | 20,000 | 곽영환 | 10,000 | 유근범 | 10,000 |
| 안필복 | 10,000 | 이병교 | 10,000 | 이광호 | 30,000 | 정외성 | 10,000 | 홍은미 | 5,000 | 국 혁 | 5,000 | 윤영식 | 10,000 |
| 안혜준 | 10,000 | 이상재 | 10,000 | 이광주 | 10,000 | 정외성 | 10,000 | 홍 의 | 10,000 | 권태경 | 10,000 | 이강산 | 5,000 |
| 안영철 | 5,000 | 이상학 | 10,000 | 이강자 | 5,000 | 정외성 | 10,000 | 홍재표 | 10,000 | 김강희 | 5,000 | 이강태 | 10,000 |
| 안기철 | 10,000 | 이상훈 | 10,000 | 이광진 | 20,000 | 정외성 | 10,000 | 홍준석 | 10,000 | 김근태 | 5,000 | 이기훈 | 5,000 |
| 안용수 | 20,000 | 이석우 | 10,000 | 이광철 | 10,000 | 정 외 | 5,000 | 홍지훈 | 10,000 | 김경년 | 10,000 | 이남희 | 5,000 |
| 안학수 | 10,000 | 이 선 | 10,000 | 이광진 | 20,000 | 정외성 | 10,000 | 황계연 | 100,000 | 김광연 | 5,000 | 이동영 | 5,000 |
| 안동현 | 10,000 | 이선규 | 10,000 | 이선영 | 10,000 | 정외성 | 10,000 | 황대철 | 10,000 | 김 구 | 10,000 | 이동우 | 10,000 |
| 안철 | 30,000 | 이선주 | 10,000 | 이상수 | 10,000 | 정외성 | 10,000 | 황명필 | 10,000 | 김규진 | 5,000 | 이동환 | 10,000 |
| 영농조합법인부영육산 | | 이선호 | 5,000 | 이재민 | 10,000 | 정외성 | 10,000 | 황병태 | 10,000 | 김근순 | 10,000 | 이민식 | 5,000 |
| | | 이선화 | 10,000 | 이완민 | 20,000 | 정외성 | 10,000 | 황중식 | 30,000 | 김기성 | 5,000 | 이민학 | 5,000 |
| 오계환 | 10,000 | 이성민 | 10,000 | 이완민 | 10,000 | 정외성 | 10,000 | 황재성 | 10,000 | 김기동 | 10,000 | 이상일 | 5,000 |
| 오두영 | 10,000 | 이성주 | 10,000 | 이양원 | 5,000 | 정외성 | 10,000 | 황재택 | 5,000 | 김대기 | 10,000 | 이성준 | 5,000 |
| 오민순 | 30,000 | 이성주 | 10,000 | 이재민 | 10,000 | 정외성 | 10,000 | 황지중 | 5,000 | 김동림 | 20,000 | 이석준 | 10,000 |
| 오문택 | 50,000 | 이성철 | 10,000 | 이양태 | 10,000 | 정외성 | 10,000 | 황창규 | 10,000 | 김동우 | 50,000 | 이정재 | 10,000 |
| 오선연 | 5,000 | 이성호 | 5,000 | 이종혜 | 10,000 | 정외성 | 10,000 | 황현택 | 20,000 | 김두환 | 10,000 | 이연주 | 10,000 |
| 오성수 | 20,000 | 이세민 | 20,000 | 이종순 | 20,000 | 정외성 | 10,000 | JNHONGMEI | 5,000 | 김윤희 | 10,000 | 이형내 | 10,000 |
| 오세호 | 10,000 | 이세준 | 20,000 | 장광준 | 10,000 | 정외성 | 10,000 | LGNS(6월) | 560,000 | 김성택 | 5,000 | 이영환 | 5,000 |
| 오수경 | 5,000 | 이숙자 | 5,000 | 장일수 | 5,000 | 정외성 | 10,000 | LGNS(7월) | 552,000 | 김신덕 | 5,000 | 이영환 | 5,000 |
| 오수원 | 30,000 | 이숙희 | 5,000 | 장진희 | 10,000 | 정외성 | 10,000 | 주신용 | | 김성도 | 10,000 | 이영환 | 10,000 |
| 오옥자 | 5,000 | 이소철 | 10,000 | 장민호 | 10,000 | 정외성 | 10,000 | 주스레텍스 박이환 | | 김성태 | 10,000 | 이영환 | 10,000 |
| 오정민 | 30,000 | 이승근 | 20,000 | 장민환 | 30,000 | 정외성 | 10,000 | | | 김성주 | 10,000 | 이영식 | 10,000 |
| 오정욱 | 10,000 | 이승만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주재원 | 10,000 | 김수복 | 10,000 | 이종민 | 10,000 |
| 오준희 | 10,000 | 이승영 | 2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허정대산업 | 50,000 | 김영규 | 20,000 | 이종섭 | 10,000 |
| 오형식 | 20,000 | 이승우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주현기 | 10,000 | 김재민 | 5,000 | 이정형 | 5,000 |
| 오혜근 | 5,000 | 이승우 | 20,000 | 장민환 | 30,000 | 정외성 | 10,000 | 자신경 | 5,000 | 김성경 | 10,000 | 이정호 | 5,000 |
| 왕정찬 | 5,000 | 이승현 | 2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자용수 | 50,000 | 김재기 | 10,000 | 이진택 | 10,000 |
| 왕진호 | 10,000 | 이미희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진보호 | 10,000 | 나선경 | 5,000 | 이정호 | 10,000 |
| 왕신호 | 10,000 | 이민하 | 5,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진보광 | 10,000 | 박인준 | 20,000 | 이진권 | 5,000 |
| 우혜진 | 5,000 | 이영주 | 10,000 | 장민환 | 5,000 | 정외성 | 10,000 | 차수희 | 10,000 | 방철호 | 20,000 | 김은재 | 10,000 |
| 원동오 | 10,000 | 이유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차연애 | 10,000 | 신해정 | 10,000 | 김용근 | 10,000 |
| 원정남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민기 | 10,000 |
| 원효진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근호 | 3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남길 | 2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영희 | 5,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성식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승주 | 5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승철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시민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원희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원숙 | 5,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원순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재원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재원 | 5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종국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종식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지수 | 8,5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진성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유정호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근영 | 5,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두원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미화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민희 | 3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병현 | 1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시영 | 5,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식영 | 15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철경 | 5,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승민 | 5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수진 | 20,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10,000 | 김재준 | 5,000 |
| 윤영복 | 5,000 | 이왕규 | 10,000 | 장민환 | 10,000 | 정외성 | 10,000 | 장재현의원 | 100,000 | 심현용 | | | |

| | | | | | | |
|------------------|-------------------|-------------|---------------|------------------|---------------|---------------------|
| 최우진 20,000 | 고석주 10,000 | 김성원 10,000 | 도재영 10,000 | 서동구 5,000 | 우성호 10,000 | 이용균 10,000 |
| 최윤규 10,000 | 고세광 10,000 | 김성재 20,000 | 동미애 10,000 | 서동화 20,000 | 우혜진 5,000 | 이용석 10,000 |
| 최인엽 10,000 | 고수석 10,000 | 김성철 10,000 | 류병욱 10,000 | 서명호 10,000 | 유병남 10,000 | 이용암 5,000 |
| 최재연 10,000 | 고승일 20,000 | 김성희 5,000 | 류영순 5,000 | 서봉은 5,000 | 원효진 10,000 | 이윤학 10,000 |
| 최정환 5,000 | 고영록 10,000 | 김세진 5,000 | 류이근 10,000 | 서성길 10,000 | 유근호 30,000 | 이원보 10,000 |
| 최중대 5,000 | 고이석 30,000 | 김소영 10,000 | 류재현 10,000 | 서영학 10,000 | 유남길 20,000 | 이원우 5,000 |
| 최중현 5,000 | 고재성 10,000 | 김소희 10,000 | 류주현 5,000 | 서옥주 20,000 | 유영희 5,000 | 이윤환 10,000 |
| 최준수 10,000 | 고정환 10,000 | 김수경 10,000 | 류현식 10,000 | 선영숙 5,000 | 유서비 새남 30,000 | 이은경 10,000 |
| 탁도웅 5,000 | 고정훈 30,000 | 김순옥 10,000 | 목주송 5,000 | 성낙준 5,000 | 유성식 10,000 | 이은경 10,000 |
| 탁병성 20,000 | 고천숙 10,000 | 김순이 10,000 | 문경숙 10,000 | 소해릭스 박이환 10,000 | 유승주 50,000 | 이은세 10,000 |
| 허중영 10,000 | 고희갑 10,000 | 김순희 10,000 | 문경순 5,000 | 손경일 10,000 | 유승철 10,000 | 이인덕 10,000 |
| 한상민 10,000 | 구국모 10,000 | 김양수 10,000 | 문근영 5,000 | 손경환 10,000 | 유사민 10,000 | 이인배 20,000 |
| 한상진 5,000 | 구수영 10,000 | 김영오 20,000 | 문근재 5,000 | 손광우 20,000 | 유원희 10,000 | 이인수 10,000 |
| 한상철 10,000 | 구영주 10,000 | 김영수 10,000 | 문미영 5,000 | 손덕현 20,000 | 유윤숙 5,000 | 이일선 10,000 |
| 함기문 10,000 | 구준경 10,000 | 김영수 10,000 | 문병혁 5,000 | 손영주 10,000 | 유재민 10,000 | 이일선 5,000 |
| 허기식 10,000 | 권중모 10,000 | 김영숙 10,000 | 문상경 10,000 | 손영주 10,000 | 유정국 10,000 | 이일영 공동대표 50,000 |
| 허서동 10,000 | 권병오 10,000 | 김영실 20,000 | 문수경 20,000 | 손진태 10,000 | 유정식 10,000 | 이장택 20,000 |
| 허정 5,000 | 권보미 10,000 | 김영주 10,000 | 문영식 5,000 | 송도훈 10,000 | 유지상 8,500 | 이장욱 5,000 |
| 현정희 10,000 | 권순희 5,000 | 김영표 10,000 | 문은희 10,000 | 송두현 30,000 | 유지상 10,000 | 이장원 5,000 |
| 홍심각 10,000 | 권순인 10,000 | 김영호 5,000 | 문은철 10,000 | 송상운 10,000 | 유정중 10,000 | 이장원 5,000 |
| 홍심근 20,000 | 권오근 20,000 | 김영배 20,000 | 문재식 20,000 | 송상진 10,000 | 유재현 20,000 | 이재현 30,000 |
| 황관주 5,000 | 권우호 10,000 | 김영덕 30,000 | 문종우 10,000 | 송영원 10,000 | 윤건영 5,000 | 이재하 10,000 |
| 황승준 20,000 | 권수숙 20,000 | 김우영 20,000 | 문종우 20,000 | 송윤환 20,000 | 윤광운 5,000 | 이재하 5,000 |
| 황방규 10,000 | 권차현 10,000 | 김우석 20,000 | 문진주 10,000 | 송재은 10,000 | 윤남희 10,000 | 이정민 10,000 |
| 황영송 10,000 | 권현진 5,000 | 김원희 10,000 | 박기호 10,000 | 송재은 10,000 | 윤도희 5,000 | 이정수 10,000 |
| | 권현진 10,000 | 김원국 10,000 | 박남용 20,000 | 송재은 10,000 | 윤두홍 10,000 | 이정수 10,000 |
| 우리블로 | 금강산닷컴(주) 10,000 | 김유경 5,000 | 박덕환 10,000 | 송재은 10,000 | 윤미화 10,000 | 이정수 50,000 |
| 강상구 30,000 | 금강산EB 50,000 | 김윤기 10,000 | 박덕환 10,000 | 송창태 10,000 | 윤병희 30,000 | 이정주 10,000 |
| 박선오 30,000 | 김기식 30,000 | 김준근 10,000 | 박동우 5,000 | 송정호 10,000 | 윤병희 10,000 | 이정현 10,000 |
| 이용선 50,000 | 김기환 10,000 | 김은경 10,000 | 박동호 50,000 | 송지섭 10,000 | 윤서영 5,000 | 이정희 5,000 |
| 이재현 100,000 | 김갑수 30,000 | 김은숙 5,000 | 박두영 10,000 | 송헌태 30,000 | 윤서현 110,000 | 이정경 20,000 |
| 정태현 50,000 | 김갑식 10,000 | 김은영 5,000 | 박문식 30,000 | 신기훈 10,000 | 윤서영 5,000 | 이정영 10,000 |
| | 김강민 30,000 | 김은혜 10,000 | 박미란 10,000 | 신대길 10,000 | 윤순희 50,000 | 이정우 10,000 |
| 온라인투진 | 김강훈 10,000 | 김은희 10,000 | 박미화 10,000 | 신동석 10,000 | 윤영복 5,000 | 이정민 10,000 |
| (주)그라 이창준 | 김경덕 10,000 | 김은상 10,000 | 박민선 50,000 | 신동애 5,000 | 윤영진 100,000 | 이정석 30,000 |
| 460,000 | 김경제 10,000 | 김익근 10,000 | 박병우 30,000 | 신상문 5,000 | 윤재희 10,000 | 이정환 20,000 |
| 김동분 50,000 | 김경진 5,000 | 김인선 10,000 | 박병식 10,000 | 신수길 10,000 | 윤재현 10,000 | 이정환 20,000 |
| 김민식 10,000 | 김경하 10,000 | 김일식 100,000 | 박병우 10,000 | 신수익 10,000 | 윤종원 10,000 | 이종우 5,000 |
| 김신하 10,000 | 김경화 5,000 | 김장연 5,000 | 박복영 10,000 | 신순인 5,000 | 윤장섭 10,000 | 이종호 5,000 |
| 김재하 10,000 | 김관식 20,000 | 김장훈 10,000 | 박성욱 50,000 | 신용철 10,000 | 윤장훈 10,000 | 이준호 10,000 |
| 노승일 10,000 | 김광아 20,000 | 김재광 5,000 | 박성일 20,000 | 신은경 10,000 | 윤장하 10,000 | 이준희 10,000 |
| 류승현 10,000 | 김광우 10,000 | 김재욱 5,000 | 박성현 10,000 | 신영이 10,000 | 윤종철 20,000 | 이지영 10,000 |
| 박영기 10,000 | 김광현 50,000 | 김재철 10,000 | 박선민 50,000 | 신준석 10,000 | 이길기 50,000 | 이지현 20,000 |
| 박상현 10,000 | 김구철 10,000 | 김재호 10,000 | 박신숙 5,000 | 신진현 10,000 | 이길희 5,000 | 이지하 5,000 |
| 박상용 100,000 | 김근우 30,000 | 김정 15,000 | 박성기 20,000 | 신진호 20,000 | 이길미 5,000 | 이진경 10,000 |
| 박승미 10,000 | 김근우 이호준 50,000 | 김정미 10,000 | 박성준 10,000 | 신진호 10,000 | 이길재 10,000 | 이진남 10,000 |
| 박재철 5,000 | 김근에 5,000 | 김정순 10,000 | 박 선 10,000 | 신현창 10,000 | 이길희 10,000 | 이찬우 10,000 |
| 손승렬 20,000 | 김근평 25,000 | 김정환 30,000 | 박 순 10,000 | 신홍수 20,000 | 이길재 10,000 | 이찬우 10,000 |
| 이영철 20,000 | 김기용 30,000 | 김정홍 10,000 | 박순길 5,000 | 심경관 50,000 | 이극림 5,000 | 이창재 10,000 |
| 이우덕 20,000 | 김기원 10,000 | 김종우 5,000 | 박순성 10,000 | 심말선 10,000 | 이극봉 10,000 | 이창환 30,000 |
| 정상원 10,000 | 김기은 50,000 | 김종우 10,000 | 박애스더 50,000 | 심중식 10,000 | 이규호 10,000 | 이창우 5,000 |
| 정지훈 10,000 | 김기연 10,000 | 김종문 20,000 | 박영철 20,000 | 심형영 10,000 | 이근덕 30,000 | 이한숙 5,000 |
| 조성우 10,000 | 김길자 20,000 | 김종순 10,000 | 박영철 10,000 | 심현주 10,000 | 이근태 10,000 | 이해동 10,000 |
| 최찬원 10,000 | 김기현 5,000 | 김종식 30,000 | 박예민 5,000 | 심현희 10,000 | 이근행 10,000 | 이현식 10,000 |
| 싸이월드 27명 15,400 | 김나홍 5,000 | 김종현 10,000 | 박예민 5,000 | 안상화 5,000 | 이금수 20,000 | 이현수 5,000 |
| 해피비 280명 127,800 | 김나성 10,000 | 김종현 10,000 | 박요순 10,000 | 안세룡 20,000 | 이기원 10,000 | 이현우 200,000 |
| | 김대관 10,000 | 김종훈 10,000 | 박용경 20,000 | 안송자 10,000 | 이기호 10,000 | 이현우 20,000 |
| | 김대성 30,000 | 김주영 50,000 | 박우경 10,000 | 안영숙 5,000 | 이기환 10,000 | 이현주 20,000 |
| | 김대영 10,000 | 김주하 10,000 | 박원규 10,000 | 안정덕 5,000 | 이길호 5,000 | 이해란 5,000 |
| | 김덕수 10,000 | 김주호 30,000 | 박월성 1,000,000 | 안정국 5,000 | 이길재 5,000 | 이해국 10,000 |
| | 김도규 20,000 | 김준오 10,000 | 박은숙 5,000 | 안종출 5,000 | 이남철 5,000 | 이해원 10,000 |
| | 김도아나 20,000 | 김준현 100,000 | 박의용 10,000 | 안준식 40,000 | 이대식 10,000 | 이흥민 10,000 |
| | 김도중 20,000 | 김중수 10,000 | 박이영 20,000 | 안형재 10,000 | 이대호 10,000 | 이흥준 20,000 |
| | 김동광 10,000 | 김중호 30,000 | 박인숙 10,000 | 안광순 30,000 | 이동성 10,000 | 이창복 20,000 |
| | 김동근 10,000 | 김준백 10,000 | 박인숙 10,000 | 안근성 10,000 | 이동성 10,000 | 이희택 50,000 |
| | 김동진(한울교회) 214,000 | 김진태 20,000 | 박재택 10,000 | 안문수 10,000 | 이동원 10,000 | 이효신 5,000 |
| | 김동현 10,000 | 김진현 10,000 | 박재현 10,000 | 안미아 20,000 | 이동호 10,000 | 이효진 5,000 |
| | 김동환 30,000 | 김진현 9,000 | 박정근 50,000 | 안순환 10,000 | 이명수 5,000 | 이희종 5,000 |
| | 김두식 20,000 | 김정근 10,000 | 박정수 10,000 | 안우성 10,000 | 이명희 10,000 | 임근재 10,000 |
| | 김두훈 20,000 | 김정영 10,000 | 박정자 10,000 | 안윤정 2,000 | 이무철 20,000 | 임광호 30,000 |
| | 김만수 20,000 | 김태순 20,000 | 박종록 10,000 | 안인보 10,000 | 이미재 5,000 | 임교근 10,000 |
| | 김만진 5,000 | 김태우 10,000 | 박종훈 20,000 | 안준우 10,000 | 이민성 10,000 | 임명주 10,000 |
| | 김민재 5,000 | 김학경 10,000 | 박종민 10,000 | 안진선 5,000 | 이민영 10,000 | 임미자 5,000 |
| | 김병기 10,000 | 김학진 10,000 | 박지용 15,000 | 양필복 10,000 | 이병교 10,000 | 임병수 10,000 |
| | 김병연 10,000 | 김학진 10,000 | 박지훈 30,000 | 양해준 10,000 | 이병재 10,000 | 임병수 20,000 |
| | 김병호 10,000 | 김해중 5,000 | 박지훈 20,000 | 어용철 5,000 | 이삼학 10,000 | 임병철 10,000 |
| | 김부홍 10,000 | 김희정 5,000 | 박지정 20,000 | 어용수 20,000 | 이삼규 10,000 | 임병철 20,000 |
| | 김미영 10,000 | 김 현 50,000 | 박지민 10,000 | 엄학수 10,000 | 이선주 10,000 | 임선영 10,000 |
| | 김민성 10,000 | 김현성 10,000 | 박희중 10,000 | 엄동현 10,000 | 이선호 5,000 | 임상수 10,000 |
| | 김민재 10,000 | 김현준 30,000 | 박희순 10,000 | 염철 30,000 | 이성민 10,000 | 임원민 20,000 |
| | 김방규 10,000 | 김희순 10,000 | 박희순 10,000 | 염농조합법인부광숙신 5,000 | 이성수 5,000 | 임인기 10,000 |
| | 김순기 10,000 | 김혜수 10,000 | 박희순 10,000 | 오경일 50,000 | 이성일 5,000 | 임정현 5,000 |
| | 김승현 20,000 | 김혜순 10,000 | 박차범 10,000 | 오경일 20,000 | 이성주 10,000 | 임재민 10,000 |
| | 김 신 10,000 | 김호일 20,000 | 박은세상 10,000 | 오계환 10,000 | 이성주 10,000 | 임재연 25,160 |
| | 김욱경 10,000 | 김방규 10,000 | 박은성 10,000 | 오두영 10,000 | 이성철 10,000 | 임정애 10,000 |
| | 김욱진 10,000 | 김병수 10,000 | 박정민 10,000 | 오만수 30,000 | 이성호 5,000 | 임종해 10,000 |
| | 김원호 10,000 | 김병준 50,000 | 박진영 5,000 | 오문태 50,000 | 이성호 20,000 | 임준수 20,000 |
| | 김원희 20,000 | 김보연 5,000 | 박대환 10,000 | 오선영 5,000 | 이세준 20,000 | 정명준 10,000 |
| | 김이법 10,000 | 김삼수 5,000 | 박동우 10,000 | 이숙자 20,000 | 정갑수 5,000 | 정명준 5,000 |
| | 김인호 100,000 | 김성근 20,000 | 박삼수 5,000 | 오세호 10,000 | 이숙희 5,000 | 정명준(북한법연구회) 100,000 |
| | 김정미 5,000 | 김성길 10,000 | 박삼영 20,000 | 오수경 5,000 | 이숙희 10,000 | 정명준 5,000 |
| | 김정원 10,000 | 김성범 30,000 | 박은애 5,000 | 오수형 30,000 | 이승민 20,000 | 정명준 5,000 |
| | 김재현 10,000 | 김성식 10,000 | 박영란 20,000 | 오영진 10,000 | 이승민 10,000 | 정민환 30,000 |
| | 김태호 5,000 | 김석진 10,000 | 박지서 10,000 | 오유자 5,000 | 이승우 10,000 | 정시영 10,000 |
| | 김태호 20,000 | 김석희 50,000 | 박지수 20,000 | 오정원 회장 50,000 | 이승우 20,000 | 정선영 10,000 |
| | 김희경 5,000 | 김선영 5,000 | 박희순 5,000 | 오창욱 10,000 | 이승현 20,000 | 정순철 10,000 |
| | 김해경 10,000 | 김선영 10,000 | 박선애 10,000 | 오홍희 10,000 | 이이희 10,000 | 정영준 30,000 |
| | 고기철 10,000 | 김선향 10,000 | 박지민 5,000 | 오형식 20,000 | 이언하 5,000 | 정영준 10,000 |
| | 고봉근 10,000 | 김선희 10,000 | 박미란 10,000 | 오재근 5,000 | 이영주 10,000 | 정영준 10,000 |
| | 고선담 5,000 | 김선자 10,000 | 박주 30,000 | 왕기환 5,000 | 이영순 10,000 | 정영준 10,000 |
| | | 김성봉 40,000 | 노형래 10,000 | 왕진호 10,000 | 이영규 10,000 | 정영준 5,000 |

우리민족에 온 편지

**“이 땅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세끼는
챙겨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본문중-



지난 8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앞으로 후원신청서와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학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심현희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죠. 지면을 빌려 심현희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편지내용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줄줄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더위가 약속하기만 한 요즘입니다. 멍하니 살아가다 먼저 덜미를 잡힐지 모르는 세상이기엔 늘 긴장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먹고 산다는 것이 그렇듯 저 또한 어쩌다 한번씩 (한겨레리)을 통해 세상돌아가는 얘기를 읽을 뿐입니다.

조그만 학원에서 밥벌이를 하다 보니 생각하는 것이 늘 대하는 아이들 수준으로 그나마 조금은 때문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참으로 다행이라 여길 때도 있습니다. 무엇 큰 것을 배워가겠다고 눈을 툇말거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 나무랄 일이 있어도 그냥 삼켜 버릴 때도 많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나와 같이 저만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스러움도 없진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 배가 쉬이 꺼져 간혹 간식을 챙겨가기도 하는데 이 녀석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먹을 수 없어 조금씩 떼어주면 어쩌나 게걸스레 먹어대는지 내 손에 남은 것은 겨우 한입 정도 밖이나 어쩌하겠습니까? 저네들이 맛나게 먹는 것을 보면서 배불러 해야지요. 근데 북녘의 그 어린 것들이 굶주려 뼈가 앙상하고 썩한 눈빛으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니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는 보탬이 못되더라도 오랫동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세끼는 챙겨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발로 뛰며 온갖 고생 다하시는 분들께 달랑 금일꾼으로 보탬이 되려는 마음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목표라는 생각,

그 생각을 넘어서야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크기를 키워라

NH NongHyup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으로
NH 농협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NH농협의 더 큰 생각! NH농협은 국민의 신뢰,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합니다.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 **NH** NongHyup